

2020 대전문화관
문학교육 프로그램

작품집

2020 대전문화관
문학교육 프로그램

작품집

초대작품

이은봉	덧밖에는 바다가	008
김백겸	가을이 소곡주를 마시고 인생의 후회를 내려놓는다	010
박영진	감나무에 깃든 추억	012
조해옥	노란 구름	016

성인 대상 창작수업 / 시

권미영	젊은 엄마에게 / 벽	020
권영란	한로寒露 / 노을 인사	023
김수예	영화관에서 / 단풍나무 아래 풀잎은 푸르다	026
김순희	달팽이 / 계수나무	030
김재형	누구시더라? / 황정(黃精)	033
박길수	세월호 제사기일	035
박정열	조용한 날들 / 백만 송이 장미꽃이 핀 정원에서 웃는 광대	036
박종숙	남편 / 부레옥잠화	039
백명자	도마 위의 지구본 / 마지막 축제를 요양원에서	042
서인원	이사 / 소꿉친구	046
송희경	바람은 하늘에서 날고 물은 땅에서 날아간다 / 덧밭일기	050
안시찬	황혼의 KTX	054
이계창	저녁 밥상 / 길	056
이미순	무선기지국 / 숫사슴	060

임형선	말벌 / 무음 전쟁	063
장금민	산까치 / 구절초	067
전경희	자운영 / 내 집	069
전숙자	야행 / 어머니의 설날	071
전이식	통일의 용틀임	074
홍중승	龍天寺의 여름 / 詩를 굶는 사람들	075

성인 대상 창작수업 / 산문

박길수	우울증 환우를 위한 밴드에 붙이다	080
박인숙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산협/이효석」을 읽고	084
안시찬	대장새	088
이선우	약밥을 만들면서	092
이재하	비누 / 아이비꽃	097
장현숙	국기달던 날	103
전이식	야영화	106

초
대
작
품

이은봉

김백겸

박영진

조해옥

덧밖에는 바다가

이은봉

밤새 바다가 덧문을 헤집으며
제 머리통을 바위섬에 부딪치고 있었다 그 바다를
두 손으로 붙잡아 갯벌 밖으로 끌고 나오면
내 오랜 통증은
와와, 축제라도 벌린 듯 잠시 환호했다
그것도 한순간, 바다는 다시 또 철썩거리며
제 작은 호흡 따위에나 취해 있었다
항시 깨어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나 아닌가
그대, 온갖 화장기 가득한 봉황이라면
나는 기타 줄이나 고르는 한갓 귀뚜라미에 불과했다
어머니의 손사래에나 꽃혀 흔들리는 갈대는
자꾸만 견고한 목소리로
고통의 의미를 캐묻고 있었고
봄이 되어도 폭풍이 되지 못한 바람은
밀려오는 통증을 따라 축축이 비에 젖고 있었다
버들개지의 속눈이나 핏으며
무너지는 계절이

별똥별처럼 치지직 소리를 내며 세상을 가로질러가도
 무명의 나는 그대 봉황을 피해
 함부로 내리쬠히는 불덩어리를 피해
 여기저기 세상을 떠돌다가 만난 한 여인이나
 한 여인의 눈동자나 탐하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오늘도 내 가슴에 반짝, 하고 박혔다
 생의 여백이나 스케치하던 내 그림은
 창도 방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차갑게 씻긴 모래톱 따위로 몸을 바꾸고 있었고
 덧문밖에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파도가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제 머리통을 바위섬에 부딪치고 있었다
 끝내 해일이 되지 못한 채
 악착같이 으깨지고 있었다 점차 피를 흘리며.

이은봉 공주(현, 세종시) 출생. 1984년 《창작과비평》 신작시집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시집으로 『봄바람, 은여우』, 『생활』 등이 있고, 시조집으로 『분청사기 파편들에 대한 단상』이 있음. 평론집으로 『시와 생태적 상상력』, 『시와 깨달음의 형식』 등이 있음. 현재, 광주 대 명예교수, 대전문화관장.

가을이 소곡주를 마시고 인생의 후회 를 내려놓는다

김백겸

가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유성온천역 7번 출구를 나간다
가을은 충남대학교 정문을 향해 가다가 우회전해서 맞은편에
커피숍 투심플레이스가 있는 계룡스파텔 쪽으로 걸어간다

가을은 측백나무 사이로 짙레꽃 열매가 초록과 붉은 별처럼
열려있는데 참새 떼가 가을의 인기척에 놀라 울타리 너머로 날
아가는 길을 걸어간다

가을은 스타렉스를 개조한 뒷 트렁크에 방랑자의 침낭과 생
활물품이 있고 반바지 청년이 기타를 치고 있는-짚시 영혼이
하루를 차박 캠핑한 휴양지의 보도블럭을 걸어간다

가을은 적막을 태운 빈 택시들이 아쿠아룸에서 유명하는 상
어처럼 관광지를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는 한가를 걸어간다

가을이 측백나무 울타리를 좌회전하면 불빛이 켜진 전주 북
집 주변에 번호가 익숙한 제네시스와 BMW와 산타페가 정박해
있다

가을은 전주북집 여사장이 월평아카데미 트랙킹 회원들을 위
해 추석 소곡주를 준비한 2층 예약룸을 향해 나무 난간이 넓아

있는 계단을 올라간다

가을은 새벽을 걸어온 등산화와 트랙킹화가 모여있는 방문을
열고 열 개의 두 눈이 일제히 쳐다보는 테이블 빈자리에 외눈박
이 괴물-늙은 시인처럼 앉는다

가을은 도원경에 이른 늙은 소년들이 백발을 늘어뜨리며 소
곡주를 마시고 있는 아침행사에서 별주 석 잔을 마시고 인생의
후회를 단숨에 내려놓은- 홍안의 소년이 된다

김백경 198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시집 『지질 시간』 외 7권, 시론
집 『시적 환상과 표현의 불꽃에 갇힌 시와 시인들』 외 2권. 2020 대전문화관 성인대
상 창작수업 시창작 지도.

감나무에 깃든 추억

박영진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네그루 있다. 넓은 집은 아니지만 70평 대지 위에 지은 슬라브형 양옥이다. 집 가장자리로 단감나무가 한 그루 그리고 나머지 세 그루는 꽃감을 켜는 짧은 감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감나무는 우리를 자주 불러낸다. 이른 봄이면 감나무 잎이 피어나기 전에 소독해야 한다. 애벌레나 나무껍질 속에 든 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약을 친다. 나는 밀짚모자를 쓰고서 분무기 통을 둘러멘 채, 감나무 가지마다 흠뻑 농약을 뿌린다. 일찍 뿌려야 나무가 병충해에 잘 견딘다.

감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감꽃이 피기 시작하면 하얀 꽃이 뚝뚝 떨어진다. 이웃에 사는 어린 아이들은 하얀 감꽃을 주워서 놀기도 하고, 우리들이 어렸을 때처럼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기도 한다.

유월이 되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구슬같이 작은 감이 떨어지기 시작

하면서, 어머니와 아내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마당과 골목을 쓸
기에 바쁘다. 아침저녁으로 떨어진 감과 잎사귀를 쓸어 모으면 며칠 만
에 자루에 가득 찬다. 감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열매를 감싸 안고 있던
감꼭지가 떨어진다. 모양이 무척 신기하다. 정사각형의 틀 속에 넉 장의
이파리가 기하학적으로 잘 배치된 것이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드신 조각 밥상보의 문양과 같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것이 규칙적인 배열로 보기에 여간 아름답지 않다.

한여름인 칠팔월이 되면 비바람과 태풍으로 감잎이 제법 많이 흩날리
고, 어린아이 주먹만 한 감이 툭툭 떨어질 때는 마당에 ‘쿵, 쿵’ 올리는
소리가 제법 요란하다. 온실 함석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자다가 깰
정도로 커다랗다. 떨어져 깨진 꽤 큰 감을 쓸어 담을 때는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왜 그렇게 감이 잘 떨어지는지 농약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약을 쓰고 비료도 뿌려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누르스름하게 단풍이 드는 잎새 사이로 수줍은 듯
이 발그레한 볼을 내민 홍시가 보기에 도 시골 새색시처럼 예쁘다. 시간
이 흐르면서 파란 하늘 밑으로, 붉은 색깔을 곱게 띠며 점점 짙게 물드
는 감나무의 열매와 잎새가 볼 때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게 만든다.
누런 감이 매달려 있는 모습은 그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다. 감나무 잎새
가 짙붉게 물들면서 낙엽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식구
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나무 밑으로 달려가 떨어진 감잎을 쓸기에 정
신이 없다. 어찌다가 바람이라도 휩 불고 지나가면 놓았던 빗자루를 이
내 다시 집어 들게 마련이다.

감이 땅에 떨어져 깨진 것을 치우지 않으면 골목길이 지저분하게 되
고, 홍시가 된 놈이 바닥에 떨어져서 뭉개진 것을 바로 물을 뿌리고 닦

아내지 않으면, 말라붙어서 보기가 흉하게 변한다. 감이 익으면 까치도 많이 모여든다. 까치들도 날아와 앉아서 즐기다가 좋은 것을 골라 파먹고, 버려둔 채 날아가 버리면 짝히고 일그러진 모습이 보기에도 흉물스럽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기 전에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 감을 따 내린 뒤에도 늦가을까지 낙엽을 뿌리면서 감나무는 자기 곁으로 우리들을 자꾸 불러낸다.

감을 딸 때는 감전지를 사용한다. 작은 장대와 긴 장대 두 개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감을 따서 밑으로 내리면, 아내는 나무 아래에서 받으며 연신 흥사와 날감을 구분해서 그릇에 따로 담는다. 올해는 해거리 탓인지 예년보다 감이 많이 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확할 때의 기쁨과 풍요로움은 건줄 데가 없다. 감을 따다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금방 먹을 수 있는 단감 몇 알씩 들려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높이 달려서 따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까치밥으로 남겨 두고 내려온다. 아마 이런 풍습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조상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된다.

감을 따는 날이면 아이들을 불러내어 함께 따고 싶으나, 자기 방에 들어앉아 공부하고 있으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둘이서 감을 따다. 해마다 아이들을 부르지 않고 우리끼리 감을 따지만, 그래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녀석들이 나무 밑에서 떨어져 굴러가는 것을 즐기만 해도 가족 모두가 즐거울 것인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장독대 뒤에도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비비면서 감나무 밑으로 달려가곤 했다. 이리저리 뒤져 떨어진 날감을 주운 뒤에 부뚜막에 작은 단지를 올려놓고, 소금을 풀어서 먹기 좋게 우려내어 수시로 드나

들며 꺼내 먹었던 기억이 있다. 먹을 것이 적었던 궁핍한 시절이었으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곱게 단풍 든 감나무 잎새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면, 붉은빛을 띠는 홍시를 골라 장대로 따서 껍질을 터뜨려 말랑거리는 속살을 한입에 들이키고, 동생과 함께 입 주변과 볼때기에 묻은 감을 보면서 서로 웃고 놀리던 기억이 있다. 또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부터는 어머니께서 깎아 매달아 놓은 꽃감을 하나둘 꺼내먹다 야단맞은 추억도 안고 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 식품에 길든 탓인지 꽃감이나 홍시 따위는 잘 먹지 않는다. 먹을 것이 많은 탓이기도 하겠지만, 자기들이 힘들여 따내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니 애착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 감나무에 올라서서 감을 따는 나도 어린 시절만큼 신나고 재미있지 않다. 감나무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떠들어대면서, 홍시를 입에 가득 물고 두 볼에 묻힌 채 깔깔대면서 좋아한다면 신이 나련만, 도대체 이놈들은 어떤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살아가려는지 모르겠다.

박영진 2012년 수필집 『배우며 가르치고 사랑하면서』 발간. 前 대전 대신중·고등학교 교장,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객원교수. 대전 서구문화원, 서구평생학습원 수필문학 강사. 그린에세이 등단작가회 회장. 2020 대전문화관 성인대상 창작수업 산문창작 지도.

노란 구름

조해옥

중국에서 날아온 노란 구름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라붙는다
폐 속까지 삼켰다가 기침하는 나무들

폐지를 모으는 외팔이가
출근하는 사람들과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그의 혈렁한 팔은
바깥이 신경 쓰이는지
어깨에 매달려서 조용하다

그의 군청색 점퍼를 구름이 삼킨다
주먹 같은 리어카도 해체되느라 삐걱거린다

그는 슈퍼에서 막걸리를 산다
노란 담을 뺏어내고
계단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신다

폐지를 찾아 외팔이는 먼 곳에서 온다

조해옥 199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당선. 2006년 7-8월호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시인 등단. 現 한남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저서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외 다수. 2020 대전문화관 성인대상 창작수업 시창작 지도.

성인대상
작수업창

시

권미영
권영란
김수예
김순희
김재형
박길수
박정열
박종숙
백명자
서인원
송희경
안시찬
이계창
이미순
임형선
장금민
전경희
전숙자
전이식
홍종승

젊은 엄마에게

권미영

노란 알전구 흐려진 부뚜막
물 한 방울 안 묻힌 금지옥엽 외동딸
숨털 같은 손으로
새끼 먹이려 연탄불에 김 굽는다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김

일터에서 오는 아득한 십리
신발보다 커진 발이 툭툭 밟는 밤
눌은밥 한술 선 채로 때우고
찬 도랑물에 얹어져 네 발로 허둥지둥
반은 건지고 반은 등등 흘려보낸
속옷과 양말과 꽃 같은 날

포탄에 팔 한쪽 떨어진 옆집 아재
텃마루 콩보리밥 파리 떄 쫓을 때
런닝 소매 하얗게 펄럭펄럭

팔 하나로 휘청거리던 아재

네 발로 버둥거리던 엄마

그땐 그 아저씨 사는 게 짝하더니

이제 보니 올 엄마 만만치 않았네

벽

권미영

벽 짚는 소리

알몸에 못 박혀 하얗게 질린 억울한 예수

소리 없이 보고, 듣고, 꽃 피우는 전지전능 창조주

천장을 떠받치는 지옥의 시지프스

서서 잠자는 초식 동물

액자와 시계의 초라한 뒷배

문(門)의 해명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

wall, wall, wall

한로寒露

권영란

갈대 푸른 잎 위에

차가운 눈물

노을 인사

권영란

고단한 얼굴들이 빈자리도 없이
시내버스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내리는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여자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흘렸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튀어나가
휴지 한 뭉치 손에 쥐어 주었다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마치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깨진 딸을
내가 일으켜주기라도 한 듯이
버스 문이 열리자 두 아이가 함께 내렸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의 뒤통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놓쳐버리고
남자아이가 차창 밖에 서서
나를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수그렸다
미리 당부라도 해놓은 듯
버스가 아이를 기다려주었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붉게 노을이 지는 구월이었다

영화관에서

김수예

날이 차다

서늘하지는 않다

차가운 것과 다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사이로

날이 저물고

굳어가는 개떡처럼 어둠은 농염해지고 있다

초행, 입장 가능하십니다

휴게실에서 시크릿 티아가 흘러나와

반죽 같은 어둠이

둔부콩 양금빛 단 맛을 터뜨리고 있다

낮익다는 것은 레베카의 목소리가

레베카의 말인지 소문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맹점인지도 모르는 맹점이다

자꾸만 초행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 주책없는 췌들러 방식

차곡차곡 개켜진 시간의 화석이

무엇을 머금었는지 어디에 짓눌렸는지
처음을 지나 왔다 여기까지 오긴 왔다

직진으로 너무 멀리 와서 지금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겨드랑이가 근질거린다

단풍나무 아래 풀잎은 푸르다

김수예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꽂초처럼 낙엽 한 잎이 팽그르르 진다
나무를 통해 흙과 만나던 잎이
바닥으로 내려온다
나무 아래 풀잎은 아직 푸르다
봄의 햇살이 꽃맛이라면
가을의 바람은 과실 향을 닮는다
신고배 베어무는 소리가
발바닥에서 잔뿌리를 내린다
초록의 풀밭에 원색의 잎들이 꽃혀
커다란 꽃다발이다
메타세콰이어도 벽돌 색으로 든든해진다
계절의 물기를 빼내어
이제는 자기 색을 드러내고
가을이 우수를 뿜내는 사이
바람이 날카로워진다
너무 무겁게 입고 나왔다 싶었는데
코끝에 입김이 서린다

잔뜩 주눅이 들어
주머니에 몸을 구겨 넣는다
발 밑을 비벼 가을을 걷다

달팽이

김순희

달팽이는 천둥이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달팽이는 우유부단하지 않아서 자기 주관대로 앞만 보고 갑니다.

달팽이는 겁내지 않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수직 절벽도 거뜰히 뛰어넘습니다.

달팽이는 먹잇감이 보이면 저돌적으로 변하며 적극적입니다.

달팽이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차게 홀로서기를 합니다.

달팽이는 나선형 나이테를 훈장처럼 머리에 새기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달팽이는 빨간 꽃을 먹으면 빨간 똥을 녹색 잎을 먹으면

녹색 똥을, 먹이에 따른 자신의 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돌적이며 본능에 충실한 달팽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사색하고 회귀하는 달팽이, 말아 접은 나선형 사다리를 장식처럼 지고 가는 아름다운 달팽이

달팽이는 내 영혼의 화신처럼 홀로 걸어가면서 달팽이의 몸을 벗어나는 탈각을 꿈꾸는 나비입니다.

계수나무

김순희

금화인 듯 은화인 듯 땅에 흩뿌려진 계수 나뭇잎

진한 캐러멜 향

숨사탕

계수나무, 그녀를 깊숙이 들이마신다

노란 파도처럼 번져가는 주홍 하트 잎사귀

바스르지는 잎사귀에서 터져 나오는 달콤한 향기

누구시더라?

김재형

꼬박골 장마비후 햇빛이 내리 짹짹

참새떼 5마리가 물장구 치구 있네

흰참새 물장구 미쳐 저수지에 뛰노네

황정(黃精)

김재형

하얀줄기야!
제발 내눈에 뛰어다오
몹시 탐이 나는구나

너한테 의지하여
내 목숨 이어간다

하지만 둥글래 새싹은 아직 돌아
나지 않았고
산속에는 눈만 깊은데

짧은 바지 아무리 잡아 내려도
무릎이 드러나네

세월호 제사기일

박길수

서산이 타고 타는 서산에 하늘이 타고
그날은 마을까지 집어삼킬 것만 같은 저녁놀이였다

앞치마에 다 흠쳐내지 못한 별 같은 눈물
외아들의 소주잔에 반짝인다

서산이 타고 타는 서산에 하늘이 타던 날
외아들의 소주잔에 별들이 잠든다

조용한 날들*

박정열

행복이란

식탁 위에서

작가가 되기는 영글러 먹은 칠십이 된 아버지가

붓을 휘둘러 대는 모습

아버지보다 이십 년이 젊어도 관심 없는 일을

엄마는 대단한 명성의 서예가를 만난 듯

때 되면 갓은 반찬에 반주를 마련하는 일

행복이란

공부하기 역세게 싫어하던 언니가

사업에 성공한 남자를 만나

입가에 매달린唱歌

평화란

말썽꾸러기 오빠가 징병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논산훈련소 기간병으로 배치되어

엄마 아빠 속을 무던히 썩이고

무사히 제대한 일

평화란

칠십이 된 아버지가 서른도 안 된 며느리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너털웃음으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네 살배기 조카가
할아버지 무릎을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바닥에 등을 대고 강아지처럼 잠이 든 일이다

영원했으면... 하지만

지나가는 조용한 날들

조용한... 시간 속...

* 양애경의 시 「조용한 날들」 패러디하였음

백만 송이 장미꽃이 핀 정원에서 웃 는 광대

박정열

바람이 피운 꽃

꽃들에서 들은 말은 푸념이다

언어의 살이 찢기는 아픔 없이

어떻게 하여

시의 붉은

심장을 꺼내 들 수 있을까.

시의 이별로 삼킨 눈물을

장미꽃은 묻는다

언어가 지는 꽃 앞에서

천치처럼 웃을 수 있느냐고

남편

박종숙

저녁에 다슬기전을 부쳐
막걸리 한잔 하려던 부부가 싸움을 한다

찬바람 맞으며 노랗게 익은 모과 한 자루 따서 동료에게
주었어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박씨와 최씨에게 다 주었어
그 사람들 집에 가져가는 것 좋아한단 말이지

내가 해마다 모과를 사다가
모과청을 담는 것도 기억 못하는 남자

쌈, 방으로 들어가며 내뱉은 말,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부레옥잠화

박종숙

첫사랑이 찾아온 줄 알았지요
환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네요

처음 만난 날
연보랏빛 날개 하늘거리며
싱그러운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초등학교가 보이던 언덕 위의 집에서
소년과 만났지요

쌍꺼풀이 선명한 또렷한 눈망울에
하얀이

너를 좋아해

그 말에 첫사랑이
찾아온 줄 알았어요.

나의 첫사랑을 닮은
부레옥잠화

도마 위의 지구본

백명자

톡 쏘는 매력에 끌려
너를 짝사랑하다
오늘은 꼭 고백할거다
단단히 버르고 다가갔다가
찢끔 눈물 한 방울 떨구고
돌아오면서 너의 속 깊은 마음을 헤아렸다
아무도 엿볼 수 없는 풍만한 가슴
터질 것만 같아 겹겹이 여민 하얀 옷썩
항상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 너는
네게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게야
무심히 살아온 듯
성스러운 우주를 품어 안느라
무섭게 파고드는 한파를
한 겹 한 겹 동여매며 돌아온 세상
나를 찡하게 감동시킨 너
이미 세상사를 알고 있었던 게지
조리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아릿함
돌고 도는 세상은 둥글어서

영원히 돌고 돈다는 것을
도마 위의 너는 네게
붓 가본 세상사
돌아 볼 차비나 챙기라니
마음에 들었다

마지막 축제를 요양원에서

백명자

글로써도 못다 쓸 인생 드라마
치매란 녀석이 바짝 달라붙어
어르신들의 남은 생을 좌지우지 한다
내가 모시던 어르신 중
가장 인성이 좋게 보이고
용모가 번듯하신 어르신
치매란 녀석이 시키면
그 잘 생긴 얼굴이
전혀 딴 어른이 되어
겉잡을 수없는 욕설로
힘해 보일 때 안타깝다
본인의 의지와 인지를
마치 드론을 조종하듯
어른을 조종하는 치매
그 녀석의 심술에서 해방되면
프로그램시간에도
멋진 작품이 나오는가 하면
오락시간에는 가곡에 이어

유행가를 불러 흥을 돋아
노년의 마지막 축제를
나와 선생님들은 추임새를 넣어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축제분위기로 보낸다
나는 망가져도 좋다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다면
어릿광대라도 좋다
어른들을 가까이서 모시는
요양보호사가 좋다

이사

서인원

용달차에 실린 장독
빗 속을 달린다
끈으로 묶인 장롱도

삭월세방 구하려고
어린 두 딸 데리고 헤맨다
반듯하고 큰 집은 너무 멀리 있어
부동산이 안내하는 낯은 집으로

물그림자도 만들지 못하고
출렁출렁 실려가는 저 장독
묵을수록 맛이 익어간다는데
함께한 세월이 그 언제였나

깨질 듯, 깨질 듯
열 번 넘어 이사를 했다
어둠이 스며든 삶의 고개에서
고통과 시름의 무게에 멈춰 선 장독

빗물인가, 눈물인가
쏟아지는 빗줄기에 새는 곳은 없나
조심조심 바퀴 밑에 고인 빗물
세월이 갈수록 땅은 굳어지다는데

소꿉친구

서인원

뉘엇뉘엇 해지는 돌담길
자야 찾아왔노라고
누군가가 외치고 있네

살며시 나타날 것만 같아
너에게 질러가는 발자국
한때는 멀리멀리 돌아서 갔네

마을 회관 확성기에서
피어오르는 사랑의 노래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봄햇살 따스한 어느 날
담밑에 앉아 숯검정 그림 그리며
깔깔깔 신랑, 각시 놀음에 빠졌었지

세상 끝까지 손잡고 가자 했는데
헤매다 지쳐 놓아버린 손
담벼락에 새겨진 이름은
남의 그림이 되어 버렸네

질척거리는 세월의 그늘에 가려
그립다 그립다
허허로운 웃음으로 포장한 채
불러보는 자야

바람은 하늘에서 날고 물은 땅에서 날아간다

송희경

하늘의 물이꾼 바람의 채찍에
낮게 흘러가던 구름때

가다가다 비가 되어
아래로 아래로 내려와

산꼭대기 신갈나무의 무릎을 타고
청미래덩굴이 무성한 숲을 지나
비탈밭 고랑에서 호박과 뒥굴다가

골짜기를 헤집고 판 모래와 바위로
산 아래 깊은 호수를 만들었다가

산중턱에서 가져온 대나무징검다리를
왕버들 그늘 모래더미에 평상처럼 놓아두고

흘러가던 흰 장마가 감감할 때

개망초가 줄지어 선 약수터 길을 오르다가
나는 알았다,

산길도 태초에 물길이였다는 걸

개울가 몽돌 위로
참매미가 폭포수 같은 울음을 토할 때
나는 알았다,

하늘에는 바람길이 있고 땅에는 물길이 있다는 걸

텃밭일기

송희경

행복이란

돌로 울타리를 촘촘히 두르고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사다 심는 일

행복이란

아침저녁 들여다보며 나와 하늘이 키운

열무 상치 아욱으로 차린 식탁에

손가락을 얹는 일

행복이란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로 차린 소반에

기쁨을 초대하는 일

행복이란

장마로 무너진 텃밭을 갈아엮고

무씨를 다시 뿌리고, 물을 흠뻑 주는 일

행복이란

이랑에서 쪼르르 햇살 짙는 무순과
빙그레 눈을 맞추는 일

황혼의 KTX

안시찬

황혼열차가 삼백 킬로미터의 무서운 속력으로
하늘을 향해 달려갔다
기차도 숨이 차 허연 기침을 토해내고
여기저기 초조한 얼굴이 된 승객들은
뿌연 안개의 모습으로 너울거렸다

앞으로 달리기만 하는 빠른 바퀴에
마른 심장들이 레일 따라 떨어졌다

내가 예약하지도 않은 차표 한 장 받아보니
객차 번호도 좌석번호도 종착역 도착시간도 없이
채 조립되지 않은 나무관 안에 영정 하나 덜렁 그려 놓았
다

간이역을 지나칠 때마다 생각나는 젊은 날의 기억
누렇게 바랜 두루마기에 털모자 깊게 쓰고
작은 역 대기실 널빤지 의자에 앉아
조개탄이 깜박깜박 졸고 있는 난롯가에서

무덤 속 할머니 콧김만도 못한 온기를 끌어안고
안경에 서린 하얀 눈꺼풀을 걷어내며
마지막 완행열차를 기다리던
등이 거북이처럼 솟아올랐던 할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빠른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을까

오늘따라 달랑 한 장 남은 12월 달력 속
몇 개 남지 않은 쓸쓸한 날짜 위로
가속을 높이며 황혼열차가 더 빠르게 지나간다

어차피 다음 생을 향해 등 떠밀려 가는 구름
아슴아슴 종착역 도착시간이 궁금하다

저녁 밥상

이계창

등근 밥상에 수저두벌이 올라있다
머리에 이고 온 텃밭이 살아서 웃고
마주앉은 그녀의 눈에 무지개가 보인다
비트 토마토 양파 상추 배추 고추 치커리

그녀의 텃밭에는 다양한 작물이 자라며
매일매일 밥상을 풍성하게 한다
햇살을 잘게 썰어 뿌려주고
구름도 한 주먹 퍼 날라 나눠주고
자연과 소통하는 마술사이다

호박꽃에 벌이 달려들고 덩달아서 춤추는 나비도 있고
고라니의 공격으로 연두 빛 새싹을 잃고 아파하지만
그 또한 승리라며 해맑게 웃는 순진함도 있다
저녁 밥상에 올릴 채소들을 수확하느라 분주하다

까만 호미 손과 모자 속에 감추어진 건강한 얼굴
눈 밑 그늘을 화장으로 덧씌우지 않아도 보기 좋은 당신

흙에 씨앗을 뿌리고 행복을 가꾸는 도시의 농부
그녀의 밥상은 친환경 농산물 전시장이다

길

이계창

봄 날

피고 지던 꽃길을 걸었습니다

땀별에 땀범벅으로

아픈 여름의 험한 길도 걸어 보았습니다

가을 나무가 제 몸 불태우며

또, 꽃길을 만들어 줍니다

가을바람이 길을 내면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산다는 것,

가슴 따뜻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제, 고운 길 걸으며

언 땅 녹이는 훈훈한 날 기약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무선기지국

이미순

기가 지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되는 거니?

OFF를 잊어버린 나는
ON이 접힌 채 걸어간다
무엇을 깜빡했는지 모르고

붉게 진 웃음 한 자락 쓸어 담는
늙은 아비 곁으로
나는 지나고
잊혀진 지니는 걸어간다

절약한 시간들이 시간 속에 자라나고
초침은 점점 길어지고 운무처럼 깔리는,
벽 없는 길을 걸어간다

일상이 열린 on 사이
제 살을 둥글게 말아 걷는 이 길은

편도 몇 차선인가요

왜 안 끊어?

3240초를 전해 준다

말아 쥔 살을 펴 놓는다

54분의 과태료

숫사슴

이미순

날짐승 기침소리
이파리 흔드는 잔바람 없고
인적조차 없다

만나고 부딪히는 길목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서 있고
쫄레꽃 개망초가 시끄럽게 피어 있다

떼거리로 달라붙은 적막이
종아리를 타고 내리는 길

저기,
딱 한 잎
흔들리는 눈

숫사슴 한 마리
나뭇가지 새로 얼굴 내밀고 있다

말벌

임형선

수려한 몸치장
정장을 하고 예의바름 같은 격식
봉사를 하며
인정받은 품위 유지를 하는 그들이
누구의 동의 없이 필요한 곳에 무조건 접수한 아지트
천하무적 두려울 것이 없다

꿀을 나르고
이웃에게 꽃가루 배달해 열매 맺게 하는
양민들 속에
맑은 창공을 제 것인 양
맘껏 휘젓고 에어쇼를 하면
붉은 피 튀어
우왕좌왕 하는 꿀벌

말살공약 난무해
조용해진 하늘같아 보이냐
어디에 숨었다가

나타나는 말벌군단
독수리 등에 올라 타
호가호위하는 무리도
꼭 사라져야 할 폭력배

무음 전쟁

임형선

선전포고 없이 진행되는 게릴라전
더티 플레이
독가스를 품은 연기
슬며시 스며들어 흔적을 남긴다

불 꺼진 창
장기 휴가
80~90% 세일 세일
폐업 임대
흰 종이에 쓰여 있는 다양한 마침표
쓰러진 폐잔의 모습
문 밖에서 이곳저곳을 훑쳐보고
먼지만 남겨 놓고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텅빈 공간을 지킨다

발길을 끊어놓은 적군
분 냄새 풍기는 길거리
덩달아 흥청이는 술

전설 속에 파묻고 있다

코로나19를 저격하라

도로를 찍고 가는 구두소리

목적을 찾아나서는 반짝이는 눈동자

옷깃 스치는 북적이는 시장통

사람 냄새나는 살맛나는 세상 만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산까치

장금민

겨울을 나기 위해 까치부부는
땅콩을 입에 물고
빨리 오라 손짓한다

서로 망을 보며 땅콩밭에 앉아
먹이를 찾는다

붉은색 머리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산까치야

배고픔의 설움을 너는 여실이 알고
있구나

구절초

장금민

구절초를 보면
엄마 얼굴 떠오른다

음력 구월이 오면 달콤하고 씹쌀한
구절초 환을 만들고

꽃을 띄어 차를 만들면
향긋하고 산뜻한
엄마 냄새가 났지

마셔도 마셔도
마르지 않는 엄마의 샘

자운영

전경희

포플러 호위하던 신작로길
자운영을 키우던 못자리는 두 마지기 꽃밭으로
초 봄 쟁기질에 씨 뿌려 일 년 양식 밑거름을 만들고
가끔은 상에 오르는 봄나물이었다.
활짝 핀 꽃이 눈길을 사로잡을 즈음
농부의 마음은 가족이 먼저라
꽃에 대한 딸의 마음 알리가 없어
그 사랑을 무참히 베어 버렸다

언뜻 지나는 그 꽃자리
아버지 생각에 눈길 머물지만
꽃도 지고 사람도 지고
다가오는 시간은 멈추지 않더라.

내 집

전경희

셋 방 살이 참 오래도 했지
남편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다녔고
단칸방 살 땐 연탄가스로 죽을 고비를 큰 딸이 우는 통에
살아났지
이런 저런 일들이야 많지만 그래도 다 견디고 지금은 내
집에 산다.

옥상에 채소를 길러 이웃과 정도 나누고
마당 단감으로 껏감과 고추장을 만드는 즐거움
날지 못하는 뼈꾸기랑 같이 살며
해가 샤워하는 것을 보려
아침저녁 오르내리는 소소한 즐거움도 이집이 주는 호사다

좀 낡았어도 편안한 옷 같은 집
숨을 쉬는 나처럼
여기에서
계절을 보내고 맛고 나와 함께 늙어갈 것이다.

야행

전숙자

줄지어선 가로등 방긋 방긋 등바라기

1,2,3 차선 종횡무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유턴

파란불 희망 손짓, 빨간불 위험 손짓

가는길 엇갈려도 너와 나의 종점 우리집

어머니의 설날

전숙자

생일도 동짓달 떠나신 날도 동짓달
그 해엔 참 많이도 눈이 내렸지요

설날

한 달 전부터 깨진 기왓장 조각 부수어 잣 개미를 만들어
놋쇠 재기그릇,
반짝 뽀짝 닦아 놓으면 겨울 햇살 방긋 인사하고 지나가
지요

칼바람 부는 겨울 냇가 화롯불 옆에 놓고 빨래를 녹여 내
시던 어머니
아직도 그 냇가를 서성입니다

사랑방 문엔 대나무 잎, 안방 문에는 국화꽃 잎, 창호지에
끼워 바르면
불빛도 은은하여 구성진 글 읽는 소리, 소근 소근 이야기
소리

등잔불 불빛 아래 아버지 명주옷에 베이는 어머니의 체온
물기만 닿으면 얼룩져 버리는 우리들의 색동옷 어머니의
사랑

이순이 넘으니
어머니의 삶이 보입니다. 하얀 옥광목 차림의 어머니 그
곳은 편안하신가요.
은빛아침 어머니의 향기, 어머니의 고운 미소, 가슴 속에
서 꺼내봅니다.

통일의 용틀임

전이식

꽃피는 이 강산에
허리를 가로 지르는
삼엄한 큰 강이 드높은 장벽을 이룬다

그 소리 들리는가?

온 민초 정성당이 뽕뽕 묶인 채
안절부절 천지를 뒤흔드는 아우성!

龍天寺의 여름

홍종승

군북면 막지리 막다른 곳
잠자고 있던 호수에 안개가 눈을 뜬다

그 속에 빠져든 사람들
용천사의 한 낮은 웃고 웃는다

용이 하늘로 날아간 자리,
연꽃 한 송이 미소 띠고 앉아 있다

원광 스님 목탁 소리에 매미가 울고
낮잠 자고 깬 태양은 법화경을 펼친다

보고 또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용 한 마리 날아든다.

詩를 굶는 사람들*

홍종승

한밭고을 玉마을에는
백옥, 문옥, 김옥, 최옥
玉자 이름의 시인들이 詩를 구우며 산다

대웅전 단청 속의 부처를 찾으며 굶고
모든 서점의 시집을 뒤적이며 굶고
문우를 가르치며 화자의 마음을 읽으며 굶는다

옥의 알갱이를 찾는 사람들
옥, 옥, 옥 하다
옥이 목에 걸려드나 보다

옥 속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어
실에 꿰면 보배가 되겠지

오늘은 나도 그들과 같이
玉을 구우러 詩場에 나간다

영롱한 빛의 玉이 내 눈에도 잡힐려나

* 빵을 굽는 사람들 어구 인용

창성
작인
수대
업상

산문

박길수

박인숙

안시찬

이선우

이재하

장현숙

전이식

우울증 환우를 위한 밴드에 붙이다

박길수

그 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서너 시간 지속된 일이지만,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두통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다. 점심을 다 먹고 수저를 놓는 순간 담임선생이 교실에 들어와 나를 불러 세우더니, 내 친구인 ○○의 도시락을 찾아오라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 날은 조화가 있던 날인데, 다리(소아마비)가 불편했던 나는 교실에 혼자 남아있었던 이유로 도시락이 없어진 것에 대해 캐물은 것이다. 그 추궁은 오후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수업시간에는 칠판 아래서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들고 있었다. 같은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옆 반 학생들까지 수군거리며 기웃거리는 시선을 한 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했다. 그들의 시선은 내가 범인인 양 싸늘하기만 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청소 당번이 청소하는 동안에는 어떤 분이 교실로 들어오더니 담임선생보다 더 무섭게 추궁했다. 1미터 대나무 자는 엉덩이에 날아들었고 허벅지에도 감겼다. 그분이 친구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같은 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은 다음 날 알았다

청소 당번이 청소를 다 끝냈을 무렵 한 학생이 학교 앞 문방구에 그 도시락이 있다고 내 친구의 아버지께 전해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아버지는 내가 왜 문방구에 도시락을 갔다왔냐고 추궁하며 또 때렸다.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었다. '친구가 미워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을 다 마무리 짓기도 전에 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쇠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뜻하지 않은 방문에 깜짝 놀랐다. 친구는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왜 전달하게 했는지, 담임선생은 그 일에 대해 왜 한 마디도 안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친구가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행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 싶다. 점심도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해도 간다. 하지만 도시락이 문방구에서 발견된 이후에는 그 도시락이 문방구에 있게 된 모든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말만 나한테 전달했는지, 서너 시간 동안 두 선생한테 추궁당하며 매 맞은 아픔보다 더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이후로 난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학교 가기 싫어서 아침에 땀에 숨기도 하고, 학교 가다뒀산 땃밭에서 한나절 놀다 도시락만 먹고 집으로 오기도 했다. 성적은 꼴찌였고 성격도 난폭해져서 화를 이기지 못할 때는 소쿠리 바가지 등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부수었다. 그런 생활의 연속으로 결국 휴학까지 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수많은 가치 속에 사는 동안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우울증 환우를 위한 밴드에 가입하면서 여러 회원의 게시글을 살펴보았는데, 우울과 우울증을 구별하지 않고 우울을 모두 우울증으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우울증은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 고통으로 나타날 때이다.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기 전 상태가 우울이라고 할 때,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맞선다면 우울증과 같은 고통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런 것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높은 삶의 질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난 30대 후반까지 자격지심을 가지고 우울 속에서 살았다. 우울증 환우를 위한 밴드를 접하면서 불행했던 청소년기의 나와 그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난 ‘딸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무척 싫어한다. ‘딸은 진실 쪽으로만 굽어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인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실리를 쫓는 몇몇 지인들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한다.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자신의 역성을 들어주기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40대 후반부터는 친구도 없지만, 적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친구의 도시락 행방에 대해 사실대로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그 상황이 지옥과 같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끝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회원이 있다면 나의 게시글이 위로와 빠른 쾌유를 위한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산협/이효석」을 읽고

박인숙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봤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이 땅에 오게 된 천사 ‘미하엘’은 세 가지의 진리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다. 미하엘은 ‘사랑’이라는 답을 깨우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 소설 「산협/이효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아니, 그들을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때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만들

어 낸 그것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불행해 지는지를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랬다. 유교적 법도에 의한 ‘관습’에 떠밀리어 허우적대는 군상들의 모습이다.

유교적 법도 중, 대표적인 ‘가부장제도’는 인간을 위계질서의 법규 속에 줄을 세우고, 남자들은 남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강자’라는 관을 씌우고 앞자리에 세운다. 그들은 남존여비, 여필종부, 칠거지악, 삼종지의라는 법도를 만들어 놓고, 아내보다는 아들이 중요하고 조상이 우선이고 효도가 우선이다. 따라서 아내란, 사랑의 대상, 인생의 동반자이기 보다는 ‘종족보존’을 위한 동물적인 수단의 개념이 우선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자들에게 어떠한 의식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하물며 그런 폭력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마저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효도라는 허울은 그들의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킨다.

이 소설의 주인공 ‘공재도’는 그런 유교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던 시대, 어느 두메산골에 사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용’이다. 그러나 자신의 불구를 깨닫지도, 아니 생각조차도 해 보지 않고 아내 송 씨를 ‘돌소’라고 비난을 하며 원망 한다.

"만약에 혈통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면 선조에 대해서 다시없는 죄를 짓는 셈이 되는 까닭이었다."

급기야 어느 날 황소 한 마리와 맞바꾼 원쑤땃을 첩으로 들인다. 그러나 아내 송씨는 남편의 불구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법도의 사슬에 온몸이 찢힌 묶인 그녀는 남편의 불합리에 한마디 저항

도 못한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피해자인 여자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할란다. ‘시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성들에겐 정말로 어떠한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치욕적인 장면이다.

그것은 당연히 남자들의 이기와 무책임이 만들어놓은 결과이지만 나 몰라라 외면함은 물론 오히려 능력인양, 은근히 즐기는 것이 또한 남자들의 속마음 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원죽댁의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였고, 아내 송 씨가 월정사에 들어가서 백일기도로 낳은 사내아이는 조카 증근의 아이였다. 결국 원죽댁은 전남편이 다시 데려가고, 증근의 아이는 낳은 지 한 달 만에 사망하고, 아내 송 씨는 다시 간수를 마신다. 결국 잘 못된 관습에 젖은 공재도의 어리석음과 욕망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 버린다.

두 아내가 가진 아이가 모두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을 때, 잠깐 동안 느꼈던 공재도의 행복, ‘혈통을 잇지 못하면 죄’라는 관습에 의한 죄의식... 등

언젠가 그것이 허상이라고 깨닫는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다.

금강경 제32장에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꿈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다.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다”는 말이 있다.

‘관습’이란 뭔가? ‘제도(制度)’란 뭔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회적인 질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 일수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때로 인간은 그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 밑에서 잠자던 토끼가 사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이유도 모르고 따라 달리다가 마침내 모두가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와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질서를 위해서 법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생각할 줄 아는 인간, 불합리에 반항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 근본적인 물음이 항상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심지어 자신의 불구마저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공재도, 그는 〈무사유의 죄〉로 인해서, 즉 깊이 생각 할 줄 모르고 관습만을 바라본 결과로 아내와 어린 한 생명을 불행에 빠뜨리고, 스스로도 파멸한다.

그런 그의 정신이 바로 산협(山峽)이다.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어쩌면 ‘물리적인 산협’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산협’을 꼬집은 것이 아닐까?

1930년대, 산협, 즉 두메산골 같은 의식 시대에 살던 이효석. 낭만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자의식이 강했던 그의 의식은 이미 산협의 시대를 떠나고 있었을 것이다.

대장새

안시찬

텔레비전에서는 새벽부터 오늘은 제주지방에 태풍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모든 배는 항구에 정박하여 결박을 견고히 하고, 각종 시설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방송을 거듭하며 자막을 흘려보냈다.

공사 기간에 쪼들려 하루라도 일을 중지할 수 없다는 상규의 조급한 생각은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공사는 그날도 계속되었다. 불어 닥친 태풍은 5층 비계에 올라 벽돌을 쌓고 있던 그를 널빤지처럼 지상으로 날려버렸다.

상규는 가난의 화신처럼 태어났다. 상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한 산을 멧돼지처럼 누비고 다니며 약초를 거둬들였다. 수집한 약초는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팔든가 약초 상에 넘겼다.

없는 집에 아이들은 왜 그리도 줄줄이 생산하였는지, 위로 고만고만한 일곱 공주에 막내가 아들 상규다.

그는 막내들의 연약한 심성과는 달리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앞장서 나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상규를 대장이라 불렀다.

우리는 그가 시키는 일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의 지시는 항상 복종심을 갈도록 공정했다. 우리가 편을 갈라 놀이를 할 때는 모두가 대장 편에 속하기를 원했지만, 다시 놀이가 시작될 때는 대장은 편을 바꾸어 다녔다.

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저녁, 상규가 말했다. “얼마 있으면 너희들, 나 못 볼지도 몰라.”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상규의 얼굴로 향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사 간다고 했어.” 말을 마치자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의 눈총을 뒤로한 채 한달음에 마을로 사라졌다.

상규는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 될 수 없었다.

가난이 그의 가족을 동네에서 내몰았다. 상규 아버지는 좀처럼 헤어 나지 못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산속 깊은 곳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아편을 수집해 팔았다. 결국 경찰에 발견되어 6개월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왔다.

동네 사람들에게 볼 면목이 없었는지 이사를 결정한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얼마 후 봄날 이른 아침, 상규 아버지가 등짐을 지고 앞장을 섰고, 어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뒤를 따랐다. 아이들은 작은 짐 하나씩을 들고 오리 새끼처럼 따라갔다.

넷가 징검다리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떠나는 그들을

배웅했다. 사람들 소리에 놀란 종다리가 배시시 눈을 뜬 물가 버들강아지 나무속에서 하늘로 솟아올랐다.

상규가 징검다리를 건너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신 손을 흔들며 고개 너머로 사라졌다.

만남이란 우연도 있다.

내가 상규를 만나게 된 것은 그 후 이십여 년이 지난 때였다. 내가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미혼 시절, 퇴근하고 하숙집에서 나와 술이나 한잔하겠다고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에는 일복을 입은 남자들 십여 명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옆 식탁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식사하고 있던 한 사람이 나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실례지만 ‘한시찬’ 씨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덩석 내 손을 잡으며 어릴 적 고향 친구 상규라고 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지난날을 풀어놓았다. 상규는 벽돌공이 되어 교도소 확장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약 한 달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다. 장가도 들어 아들도 하나 있는데, 부모님은 포천에 계시고, 부인은 대전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후 상규는 하루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내 하숙방으로 찾아오곤 했다. 한 달이 지나자 공사가 끝나, 대전으로 내려간다는 헤어졌다.

그 후 우리의 연락은 계속되었고 내가 퇴직하여 대전에 정착하였을 때는 상규는 제주도에서 조적공 책임자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하는 여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고 묻자, 상규 부인이라 했다. 웬일이냐고 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규가 얼마 전에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식물인간이 되어 서울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으로 옮기고 싶으니 마땅한 병원을 좀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머리가 멍하여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병원 원장을 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소개받았다.

친구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가르쳐 주며 대전으로 이송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걱정하지 말라며 대전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상규가 대전에 내려온 지도 벌써 십여 년이 지났다. 그는 오늘도 산재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눈을 감고, 말을 잊었지만, 지금도 가족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대장새'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약밥을 만들면서

이선우

약밥을 처음 만들었다. 그날은 추적추적 장맛비를 맞으며 날갯이를 했다. 떡보인 나는 많은 요리 중에서도 약밥 만들기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떡집 떡 중에서 식재료가 가장 고급스럽고 영양이 있기 때문이었다. 외모 자체에서 풍기는 기운이 기품이 있어 보이며 어원도 밥 중에서 가장 보약이 된다고 한다. 어릴 때는 비싸서 못 사 먹고 젊을 때는 직장에 바빠 퇴직 후에서야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일곱 번째라니. 신 살까지 도우미 덕분에 한 번도 볼 품 있는 요리를 손수 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대단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약밥 장수를 해도 되겠다는 자부심마저 생겼다. 옛날에는 약밥을 시루에 찌곘지만 지금은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었다. 똑같은 사람이 만든 밥이지만 한 배에서 태어나는 자식들도 성격이 다 다르듯 매번 맛은 각각 달랐다.

첫 번째는 첫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집중하여 만들었다. 현지에서 구입한 공주 정안 알밤과 연산 대추, 가평 잣 하나하나마다 지성을 담아 만들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요리 방법을 보고 계량컵과 저울로 꼼꼼히 측량하여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 괜찮은 예술품이었다. 많은 분량을 조절하려다보니 동작이 굼뎠다.

두 번째는 시간을 단축하며 특별히 색깔까지 신경을 쏟았다. 정월대보름을 *오기일이라 하여 찰밥으로 까마귀에 공양하는 풍속이 생겼다는 까마귀 색깔인 흑설탕을 듬뿍 넣었다. 그 결과 처음 갈색 설탕을 넣었을 때보다 훨씬 윤기가 자르르 흘러 새까맣고 시꺼먼 건강미 넘치는 약밥이 되었다.

세 번째는 대추를 모양새 없이 썩덕썩덕 채 썰어 넣었던 것을 이번엔 돌돌 말아 쫄쫄히 썰었다. 그랬더니 사군자 중 절색인 매화꽃이 겨울도 아닌 한여름에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었다. 동가홍상이라 했듯이 상품 가치도 제법 있었다.

네 번째는 건포도를 거의 다 써 냉장고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넣었다. 그 결과 바람서리 이겨 내며 반 건조된 건포도 그 특유의 쫄쫄함 떨어졌다. 아, 요리사들이 말하는 식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다섯 번째는 향기 짙은 식재료는 맨 나중에 넣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여 계피 가루만 남겼다가 밥솥 스위치 누르기 직전에 넣는다고 하고서 깜빡했다. 그 바람에 향기 없는 꽃처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식욕이 떨어지는 약밥으로 추락했다. 음식은 향기로 먹는다 했는데.

여섯 번째는 찹쌀을 네 시간 정도는 불리라고 했는데 시간을 아낀답

시고 세 시간도 못 되게 불려 가장 빠른 약밥을 만들었다. 그러나 빠른 반면에 잘 저야할 약밥은 푸석푸석 했다. 찹쌀밥은 영양 흡수가 잘 되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 좋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좋은 기능을 한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일곱 번째는 친한 교인과 역할 분담을 해 찹쌀도 충분히 불리고 갖은 재료도 눈대중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일사불란하게 넣은 후 드디어 화룡점정인 전기밥솥의 스위치를 눌렀다. 넣는 순간, 뭉가 석연치 않은 아쉬움을 느꼈다. 마치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했던 것처럼 찹찹했다. 이미 밥솥은 임무 수행을 다 했다.

일곱 번씩이나 반복해 별 탈 없이 잘 되리라 믿었다. ‘맛있는 밥이 다 되었다’는 낭랑한 소리를 듣자마자 친구부터 먼저 한 그릇 퍼 주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두고 먹으려고 열기를 식히는 중이다. 친구는 약밥을 그럭저럭 반쯤 먹었다. 그리고 맛있다 없다는 말도 없이 할 일 있다고 하며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갔다. 오늘따라 약밥을 시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만들어 먹어 보아 질리기도 했고 코로나19로 두 문불출하여 살이 확 쪼가 되어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었다. 여섯 번째까지 해 온 것처럼 별 탈 없이 잘 되었겠지 하면서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친구가 먹다 남긴 것을 늦게나마 한 숟가락 먹어 봤다.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빵 얻어맞은 듯했다. 딱딱한 흰 쌀이 입안에서 곱도는 것이 아닌가. 아! 그 찹찹했음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식히던 약밥들을 모조리 거뒀 껌통에 물을 붓고 채반에 생쌀을 얹어 다시 익혔다. 여러 번 주걱으로 뒤집어가며 다시 물을 붓고 세 차례나

더 익힌 결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재생되었다. 그간 최소한 익는 것만큼은 확실했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아뵘썬! 대추 껍질을 제거하고 남은 씨에 붙은 얇은 살을 밥물로 사용하려고 우려내는 바람에 밥물이 졸아 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순을 넘긴 나이에 삼층밥이라. 그와는 달리 친구는 덜 익은 밥을 먹고도 불평 없이 간 것이다. 이미 삼층밥이 된 결과물을 원상태로 복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유독 더위를 못 참는 선천성 열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찜통에 다시 찌야했다. 그 열기에 더 곤욕스러웠다. 손에 익어가면 갈수록 더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하는 것이지? 반복학습의 효과가 변질된 것을 깨달았다. 결국 최소의 밥물로 최대의 양을 만들려는 나의 바람은 정직한 요리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았다. 찜찜했으면서도 물 분량의 최종 확인이 없이 상상만하고 더 맛있는 약밥만 기대했다. 차분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이 몇 배의 노력과 시간과 전기를 낭비했다. 바쁘다고 간 친구에게 뒤늦게 전화로 이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그런데 친구는 뜻밖에 대답을 하지 않는가? ‘익지 않은지 몰랐다’ 고.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빵 얻어맞았다. 평소 편식하는 식성이 까다로운 친구는 아니더라도, 아무리 찹쌀에 밤 대추 잣 건포도 온갖 고명으로 포장되긴 했지만 찹쌀이 덜 익은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소 도우미를 두고 살아 요리에 서투른 나에 대한 깊은 배려가 아니었던가?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친구가 먹었기에 망정이지 잔치 날이라도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나마 한 가지 잘 한 것은 삼층밥의 원인을 빨리 알아차려 설익은 대로 먹거나 버리지 않고 남은 것이라도 찜통으로 옮겨서라도 다 익힌 것이다.

모든 일의 처음은 '시작이 반' 이라서 중요하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일곱 번이라는 반복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의 결과와는 엄청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삼층밥은 세 번씩이나 더 익혔어도 질편하고 맛이 없었다. 모든 일에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하면 먹을 때 좋기 마련이다. 일곱 번째 약밥은 진정 보약으로 온전한 첫 번째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남겼다. 인생을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처음으로 돌아서 멀리 가는 것을 선택하리라.

* 오기일 : 까마귀를 공경하는 날이라 하여 음력 정월 보름을 이르는 말. 신라 소지왕이 까마귀의 덕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자, 이날 까마귀의 은공을 기리기 위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인용

비누

이재하

하루라도 거르면 털복숭이가 되므로 매일 면도를 한다. 또, 웬지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 전기면도기는 안 쓴다. 면도 거품은 따로 사지 않고 비누로 낸 거품을 사용한다. 괜한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누 사용이 영 불편할 때가 있다. 작아져 거품이 잘 일지 않는다거나, 얇아져 잘 부서질 때다. 거품이 잘 일지 않으면 면도에 필요한 양의 거품을 얻기 위해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증가한다. 그렇다고 거품 내는 걸 대충 끝내고 면도를 하면 거품이 너무 적어 피부가 상하거나, 거품의 응집력이 약해 바빠 움직이는 면도기로부터 거품이 러닝셔츠 여기저기에 종종 튀어 묻는다. 부서지면 아까워 버리지는 못하고, 조각들을 모아 면도에 필요한 거품을 만들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조각들이 두 손바닥 사이로 빠져 달아나기 일쑤다. 조각들이 작거나 많으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비누가 너무 작아지거나 얇아져 그런 불편을 초래하기 이전에 새 비누를 가져와 비누 받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표면에 거품이 남아 있는 작아지거나 얇아진 쓰던 비누를 겹쳐 놓는다. 다음에 사용할 때는 두 비누를 한꺼번에 두 손바닥 사이에 놓고 거품을 일으킨다. 처음 몇 번은 두 비누가 서로 걸돌므로, 작은 것이 두 손바닥 사이로 빠져 나오거나 부서질 것에 대비해 조심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몇 차례 거듭 사용하면 두 비누가 서로에게 녹아내리면서 이내 하나가 되어 가므로 그런 조심은 할 필요가 없어진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붙어 있는 듯 보이는데, 곧 윤곽선이 매끄러운 게 원래부터 한 비누였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두 비누의 경계선만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보아도 한 비누다. 게다가, 거품이 잘 날 뿐만 아니라, 서로 걸돌지도 않는다. 마주보아 붙어있는 면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된다. 언젠가 새 비누만을 남기고 작은 비누가 먼저 닳아 없어질 때까지.

2년 전 닳아 없어진 작은 비누가 된 아내를 생각한다. 42년전 한창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이 만났다. 마치, 처음 만난 두 비누처럼, 처음엔 어설픔게 걸돌며 서로를 알아 갔다. 행여나, 상처를 주게 될까, 헤어지게 될까 조심하며, 4년이란 긴 공백기를 가졌다. 그러나 결국, 온갖 세상 풍파를 겪으며 서로에게 녹아내리면서 하나가 되었고, 36년 간 서로에게 충실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서로의 불완전하고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나 불편함을 주지 않았으니, 그래도 나를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위안한다.

오늘도 아내를 생각하며, 생전에 더 잘 해주지 못했던 것과 먼저 보낸 다음에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 살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용서를 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이야기한다.

여보! 아프지 않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잘 지내고 있지요? 고맙고,
미안하고, 보고싶어요!

아이비꽃

이재하

아이비에 꽃이 피었다. 전체 길이가 7, 8센티미터 남짓한 야생 아이비다. 보통은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키우지는 않지만, 아파트 담장 맨 위 벽돌 틈새에서 자라고 있는 게 신기하여 작년 여름에 뽑아다 거실에서 키워 왔었다.

처음에는 수정재배용 화분에 물을 붓고 뿌리를 담가 놓았었다. 물 보충 해 준 것 말고는 특별히 관리해 준 것도 없었는데, 야생식물이라 그런지 가을을 거쳐 겨울을 나는 동안 잘도 버티어 냈다. 올 봄에는 꽃집에서 서비스로 화분 분갈이를 해 준다고 하여 다른 화초들과 함께 가져가서 분갈이를 해 왔다. 기특한 마음이 들어 다른 화초들과 같은 대접을 해 주려 했던 것이다. “야생식물이 출세했네, 화분으로 이사를 다 하고.” 그날 분갈이를 해 주었던 직원 분이 했던 말이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작디작은 흰 꽃을 자세히 관찰한다. 지지리도 못

생겼다. 꽃잎은 달랑 세 개. 길이로 오므라져 폭이 좁고 끝은 뾰족하여 마치 삼발이 같다. 꽃이 예쁘거나 탐스럽지 못하면 무리라도 이루었으면 좋으련만, 달랑 한 송이다. 꽃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줄기에서 바로 나오다 보니,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코를 대 보니, 향기도 없다. 하기가, 화원에서 사 온 것도 아니고, 작년 여름 어느 날엔가 귀갓길에 그 이전에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모습이 신기해 눈여겨보고 있던 걸 뽑아 왔던 것이니, 그런 기대를 할 것도 아니다. 다만, 제대로 적응할까 하고 걱정했는데, 여태 잘도 살아와 못 생기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꽃이나마 피워낸 게 그나마 기특하고 신기할 뿐이다.

그리고 보니, 질긴 생명력 빼고는 내세울 것 없는 주제에, 요놈은 용감한 건지, 뻔뻔스런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나름 꽃이라고 하는 걸 피워 오지도 않을 벌, 나비를 유혹하고 있다. 가당찮고 안쓰럽다. 가만 보니, 아이비 잎 사이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는 거미줄 하나가 쳐져 있고, 그 위에 앉은 먼지 하나가 실바람에 그저 그네만 타고 있다. 아마, 그 먼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는 무심하게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다. 저 자신만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극도의 이기심, 교만함, 뻔뻔스러움, 어리석음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는 아랑곳없다. 오로지, 본래의 의도를 숨긴 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내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

나와 같은 먼지에게도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그들은 그런 현실을 과연 알고는 있을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진정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그래서, 자신들이 추는 춤에 현혹되어 찾아올 벌, 나비라도 있다고 진정 생각하는 것일까?

가당찮고 안쓰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저 무심하게 실바람

에 그네만 타고 있어야 할까?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국기 달던 날

장현숙

얼마 전 한글날 아침

문득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지 헷갈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에서 일반 기념일로 격하되었다가 다시 국경일로 되긴 했지만 근 6년 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다가 4년 전인 2016년에 또다시 부활하는 등 소중한 국경일로 자리 잡기까지 진통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헷갈렸던 것이다.

검색을 해보니 계양하는 것이 맞아 국기를 꺼내 국기봉에 꽂으면서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한 집도 국기를 달지 않았다. 보통 아파트에선 국경일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 일찍 국경일임과 국기계양을 권유하는 안내 방송을 해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것도 없다가 마침 계양 후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왔다.

고층인지라 바람이 거세서 국기 봉에 꽂아놓은 깃대가 휘청거리며 깃발은 ‘다다다닥’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펄럭였다. 아니 펄럭인다기보다는 그저 바람에 고문당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였다. 국기 봉에서 빠져 저 아래 어디론가 떨어져 날아갈 것만 같은 걱정애 어느새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꾸만 밖을 내다보며 몇 번이고 국기를 거둬들일까 생각도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잦아들었는데 그 틈에 깃발이 깃대에 돌돌 말렸다가 한 겹씩 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베란다 아래를 또 내려다봤을 때 더 이상 국기를 단 집이 없음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다.

언젠가 단독 주택에 사는 동생이 국기 달라고 방송까지 해 주느냐며 의아해한 적이 있다. 사실 바쁜 현대인들이 잊을 수 있으니 친절하게 국기 달 것을 권유하는 안내 방송은 괜찮다 생각한다. 문제는 방송을 해줘도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국경일에 국기를 다는 집은 정해져 있는 듯 보인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국경일을 알까?’ 하는 것이다.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조금만 관심을 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은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직접 태극기를 게양해 보도록 권하는 것도 교육상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애국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까.

늦은 오후

무심결에 내다본 국기 봉은 바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는

지 깃대 길이가 짝박해져 있었다. 따라서 거기 대롱대롱 매달린 깃발은 심히 못살게 굴던 바람에 종일 시달린 끝에 난간과 방충망 사이에 끼여 더 움썽달싹 못 하고 있었다. 아파트 외벽에 자꾸 부대끼면서 쓸어내려 먼지 때를 시커멓게 묻히고 지칠 대로 지친 모양으로 풀이 잔뜩 죽어 있는 것이 비록 생명체는 아니지만 가엾어 보였다.

어느새 하루가 저물기 시작해서 보니 하강할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 있었다. 문득 중고등학창시절 길 가다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을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 하강식을 바라보던 때 가 있었음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일 년에 많지 않은 국경일에 잠시나마 나라를 생각하며 국기게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경일에 놀러 가는 것은 좋은데 꼭 국기를 달고 갔으면 하고 말이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국기를 걷었다. 온종일 못살게 굴던 바람을 견디며 시달린 국기에게 조용히 말해주었다.

“종일 애국하느라 수고했어.”라고

야영화

전이식

예순이 넘은 나이로 직장에 근무할 당시다. 파사로운 어느 봄날 무슨 일로 본관 뒤뜰을 지나는데 화단 한쪽에 내동댕이쳐진 화분이 하나 눈에 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못쓰게 되었다고 누군가 내다버린 것 같다. 안타까움에 다가가 심어진 대물을 보니, 짐짓 명맥의 기를 잃은 것 같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에 밀동을 파봤다. 겉보기와는 달리 융하게도 속에서 움이 트고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식물이지만 고귀한 생명력을 살려보기로 한다. 분갈이를해 햇빛이 잘 드는 집무실 창가에 갖다놓고 물을 준다. 보란 듯 싹이 나오고 가지를 치며 기운차게 자라난다. 새순엔 청초한 보라빛갈의 곱고 순질한 꽃을 피우며 하얗게 변해가는 신비로움이 있다. 기상에 따라 그 모습은 시차를 뒤 드러나는데, 방향이 어찌나 상큼하고 매혹적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감성을 연발해 온다. 어느 동료는 첫눈에 취했

는지 달라고까지 하고 있었다. 꽃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던 중 내가 군 소재지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고심 끝에 가택으로 옮겨 보살피기로 한다. 계절과 상태에 따른 주의를 기울여, 원기가 부족하다 싶을 땐 배양토나 깻묵을 덧거름으로 준다. 정성의 손길이 유지와 무성의 길이다. 그래선지 매년 꽃을 피우며 여윌히 살아왔다. 가족의 벗이며 공동체로 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신비의 우주세상은 궤도를 돌며 절후를 새로이 장식한다. 입동이 지나며 갑자기 때 아닌 한파가 몰려왔다. 예년 같으면 화분을 대청에 들여놓았겠지만, 설마 하는 뱃심에 그냥 지나치고 만다. 일찍 들여놓으면 서서히 단풍이 들고 무시 잎이 떨어져 주위가 너절해, 은근히 낙엽이 지기를……. 생육온도를 제대로 모른 채, 방심을 한 것이다. 추위에 얼마나 삶겼는지 며칠 만에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모습이다. 완전히 얼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나무 같은 줄기가 그렇게 쉽게…….’ 하며 화분을 대청에 들여다 놓는다. 깔끔하기는 했지만 시기적절한 대처를 못한 위기감은 가시지 않았다.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될 땐 동사할 정도로 추위엔 약성일 것이란 가정 하에서 지금껏 관리해왔는데……。 날씨가 평년기온으로 회복된 뒤에도 그 같은 생각이 들며 영 편치 않은 것이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자책감을 결기로!’ 라며 가지껍데기 일부를 벗겨봤다. 얼었다 녹아선지 좀 다르긴 해도 그렇게 못쓰게 된 것 같지는 않다. 수난인지 모르겠다며 기사회생하기를 바란다. 한겨울을 보내면서도 물을 주는 등 곡진히 보살핀다. 하지만 볼수록 기세가 호전되기보다는 감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생의 희망보다는 예사롭지 않음이 직감된 것이다.

그런 중에 무술년 새봄을 맞이한다. 햇빛을 많이 받게 하지는 심사에
서 삼월 초 어느 날 화분을 밖에 내다 놓는다. 유달리 춥고 긴 동절기였
다가 포근한 날이 찾아들어 ‘이제는 점차 풀리겠지’ 한다. 하지만, 더러
는 정월 못지않은 차가운 꽃샘추위가 찾아 든다. 그런 중에도 매화, 개
나리, 앵도를 비롯한 다른 화목들은 눈이 트고 꽃이 핀다. 하지만 라일
향은 생에 대한 아무런 동정 없이 삭정이로 보일뿐이다. 아니, 더욱 쇠
잔해 가는 모습이다.

기다리다 못해 어느 날 용기를 내 전정가위로 줄기를 잘라봤다. 아니
나 다를까 마르거나 부식되고 있었다. 흙속 원줄기를 후벼 봐도 생명의
여자가 보일 않았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릇된 판단이
그처럼 고상한 꽃나무를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들게 한 것 같았다.
내적인 속성을 모른 채 목숨을 앗게 한, 정말 죄스런 마음이 파고드는
것이다. 어떤 의미와 인상이 얼마나 각인되었는지 자꾸만 떠오르
며……. 다만 그님이 보았고 그님 같았던 그님이 그님 곁으로 갔을 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볼 따름이었다.

그러함에도 서운함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옥상에 올려두어 봤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본 조치에 불과할 따름인지
모르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며……. ‘그 전 같으면 꽃이 피
고 짙은 향기를 내뿜고 있을 텐데…….’ 어딘지 모르게 공든 탑이 무너
진 듯한, 허실한 감정에 젖어들기도 하였다.

숙고 끝에 꽃집을 찾아가 보기로 한다. 대타를 마련해볼까 해서다. 평
소에 어디를 오가며 봐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꽃집이 떠올랐다. 복합
터미널 동서대로변 두 곳이다. 먼저 매장의 규모면에서 볼 때 그리 크진
않은 작은 꽃집을 향해 발길을 옮긴다. 현장은 버스정류소 뒤라 막간을

이용한 화훼 감상에선지 고객과 승객들이 눈여겨보거나 서성대다 행선지를 따라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가자마자 매장을 한 바퀴 휩 둘러본다. 하지만 그 같은 종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안주인이 고객에 둘러싸여 상담 중인데, 라일향을 말하니 아주 모르며 그런 것 없다고 한다. ‘그전에 버스를 기다리다 봤는데?’ 그 때 바깥 양반에게 식물명을 묻자 ‘라일향’ 이라 하여 ‘그렇구나’ 하며 그 말을 되뇌어봤고……. 반면 라일락 향을 낸다고 해서 그 자신이 그렇게 명명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반신반의의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던 기억도 난다. 부부간이지만 너무나 달랐다.

다음은 터미널 옆 큰 도매꽃집을 가보았다. 그 집의 주인인 듯해 보이는 중년 남자와 가족이나 점원으로 보이는 이십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고객은 없는데 꽃대궐 같은 넓은 화원을 지키고 있었다. 곧바로 라일향을 말하자, 알고는 있으나 현재 그곳에는 없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자, 구할 길이 막힌 듯 망설여져……。 생각 끝에 좀 멀지만 이따금 지나다니며 본 중리사거리 인근의 ‘뜰에봄꽃집’ 을 가보기로 한다.

도중엔 홈플러스를 들르기도 했다. 시류 따라 꽃집이 생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곳곳을 넘나들다 이른 환절기 의류를 보게도 된다. 또한, 신발류와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 값이 비쳐지기도 한다. 시장조사가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른 느낌이다. 꽃집은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는 양 눈에 띄지 않았고…….

홈플러스를 나와선 대로 횡단보도를 건넌다. 햇볕 든 쪽을 걸으며 주변과 거리의 변화를 반추하던 중 꽃집에 이르렀다. 형형색색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진 안쪽 구석까지 돌아본다. 애경사 화환을 만드는 작업장이 뵈기도 한다. 꽃집을 시간 있을 때마다 들렀지만 그 장면을 처음 본

것 같다. ‘끌림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시선을 바꾸지만 목적물은
뵈질 않는다.

머뭇대다 못해 바깥주인에게 말문을 연다. 고개를 가우뚱 하길래, 꽃
의 색깔변화와 독특한 향기를 강조한다. 그러자 그렇게 뒤져봐도 눈에
띄지 않던 화분을 코앞에서 가리키며 “이것 말이신가요?” 하며 꺼낸다.
내가 그렇다고 하니, 그분은 ‘라일향’ 이 아니라 ‘야영화’ 라고 말한다.
작달막한 크기지만 반가움이 앞선다. 꽃이 퍼 향기를 내고 있었다. 크기는
달라도 집의 것과는 동류이다. 얼마냐니까, 만원이라 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적정가인 것 같기도 하다. 순간 집에 것은 오 만
원의 가치로 떠오른다. 한 그루 남았는데 그것마저 팔렸다한다. ‘언제
어디서나 인기가 좋은가보구나’ 했다.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니까, 내
주 화요일 서울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다행이라며, 그 때 오겠노라
약속처럼 말했다. 어서 구해 빈자리를 채우고 원하는 수형과 크기로 가
꿔 진한 꽃향기를 내뿜게 하고픈 것이다.

주간계획에 따라 생활하다보니 한 주일이 금세 지나며 월력에 표시된
다른 행사도 돌아왔다. 아침부터 시 위원회 분과 모임에 신경을 쓰다 보
니, 자신도 모르게 라일향이 뒷전으로 밀려나…….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쓰던 글
을 쓰고 있었다. 그 때 무슨 글밭에서 지난주 꽃집에 갔던 기억이 퍼뜩
떠오른다. 하마터면 잊을 뻔한 것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돈을 챙겨서
꽃집으로 달려갔다. 마침 수도에서 온 많은 화분들이 받아 내려지고 있
었다. 눈을 번득이며 라일향을 찾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업주에게 지난
주 얘기를 해도 그런 거 모른다고 생판 잡아뜬다. ‘왜 그렇게 까맣게 잊
고 돌변한거지?’ ……특징을 말하며 오늘 많이 들어온다 했다고 하자,

그제야 “아, 야영화!” 한다, 그리고선 몇 걸음 건물 외벽 쪽으로 걸어가 상자를 뒤적거린다. 지난주에 본 크기의 야영화 화분 세 개가 나란히 선 보인다. 너무도 기뻐다. 다가가 마음에 드는 화분을 고르고 대금을 지불 하자,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갈 수 있도록 꾸려주었다. 그러면서 “야영화는 추위에 약하며 햇빛과 물을 좋아해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야영화’로 통하는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향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앞뜰에 짐을 풀어 부엽토로 북을 돋우고 물을 줬다.

야영화가 맞다는 가정 하에 PC검색을 해봤다. 가지과 반관목성 다년초로 자스민, 브룬펠지어, 야영화 등으로 불리며 종류가 다양한데, 원산지는 중남미 서인도제도라 하였다. 생육적온은 13~16℃로 강한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조건이 되면 연중 꽃을 피우는……. 차로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 밤에는 꽃의 향기가 더욱 진해진다고하여 ‘야영화’라 부른다고도 소개를 했다.

같은 조상의 뿌리라는 생각에 아직도 소식이 감감한 옥상 화분 옆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올려다 놓았다. 있어야 될 제 식구가 들어와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 고상한 품격이 집안에 묻어나며 뿌듯한 행복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야영화’를 제대로 키워보자는 결의가 앞선다. 꽃과 열매에……삼목 등 번식방법도 알아보고, 상생 번영하는 조화로움과 성장을 그려보기도 한다. 수난에도 쉽게 굴하지 않고 버티는 신묘한 걸물로 길러 보고픈 것이다.

한편 조석으로 물을 주며 기적적인 회생을 기대한 화분은 아무런 기색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속망 없이 옥상 계단을 올라가보니 하룻밤 새에 무슨 파란 싹이 뽕족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갈구한 여러 날, 희망의 색깔이다. ‘지성감천’ 이라더니, 살펴보니 줄기와 잎 모양이 어딘지 야영화를 닮아 보인다. 너무나 감격해 애지중지하던 중, 불별 슬래브 지붕이 또한 문제가 된다. 지기 오르는 현관 앞뜰이 좋겠다면 그곳에 내려다놓는다. 생각대로 적응상태가 양호하게 돌아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린 줄기의 십여 잎 중 맨 아래 두 잎만 남겨진 채 모두 벌레에 갉아 먹혔다. 환경을 탓하고 예방을 강구하며 다시 옥상에 급히 올려다놓는다. 한동안 갓난애처럼 돌보는데, 위기가 기회인지 끈질기게 새잎이 피어나며 튼실히 자라난다.

상상 속에 ‘불사조’ 라는 말이 연상되며 수시로 보살피고 지켜보는데, 성장할수록 가지와 잎 등이 야영화와 다른 양상을 보여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버드나무’ 라는 확신이 서게 된 것이다. 영원한 사랑과 이별에 기다림의 전설과 유래를 많이 간직한 버드나무!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 신령스런 나무가 어디서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안착해 왔단 말인가!/?

2020 대전문학관 문학교육 프로그램作品集

발행일 2020년 12월 17일

발행인 심규익

편집인 이은봉

편집장 임창웅

진행 배현진

디자인 도서출판 십지

발행처 (재)대전문화재단 대전문학관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16

전 화 042)626-5022 팩 스 042)621-5023

홈페이지 <http://www.dcaf.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ejeonLC

ISBN 979-11-965167-7-2 03800